‘갈등 해소’ 위한 종회소집 요구

무차회, 토론회 이어 종회소집 요구서 제출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차회 대표 정산 스님〈사진〉이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중앙종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산 스님은 9월 6일 서울 인사동의 한 카페서 열린 무차회 제2차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종단개혁 이후 현재의 선거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건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종도 모두 집중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실수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종도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종단 분란의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여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명선거 종회 결의 강조

“선출직 종무원 참회하라”

그러면서 △선거 전 임시종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정한 종헌종법 집행 △무소임 스님 경제적 지원 △승려 종무행정가 양성 △재가불자 교육체계 구축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산 스님은 이어 “6차 촛불법회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불자고 도반이었다. 뉴스에서 폭력적이고 이교도들이 많은 것처럼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종회의원으로서 부족함에 대해 참회했다. 욕먹을 줄 알았는데 되레 박수를 받았다. 왜 더 빨리 참여하지 못했을까 반성했다”고 촛불법회 참가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또 “대중이 이해해준 덕분에 참회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만 조금 바꾸면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느꼈다”면서 “종헌종법을 통해 선출된 교역직 종무원이라면 모두 그 자리(촛불법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차회는 7일 종단 내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의의 장을 마련하는 중앙종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8년, 성역 없이 말하고 듣자”

종단현안 대화추진위, ‘대화의 場’ 제안

총무원 · 연석회의 · 시민연대에 참석 요청

마곡사 금권선거 논란, 용주사 주지 은처자 의혹, 적광사미 폭행사건 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불교시민사회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백년대계본부가 성역 없는 대화의 장 마련에 나섰다.

백년대계본부 산하 종단현안 대화추진위원회(상임대표 도법)는 9월 6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종단개혁연석회의 ·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에 “진실한 대화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대화추진위는 지난 8월 열린 대중공사서 위원들이 종단 현안과 관련된 대화의 장 마련을 요구하며 구성됐다.

이날 대화추진위는 “삼계화택의 불을 꺼야할 조계종단 공동체가 오랜 세월 스스로 쌓아온 폐단의 불길에 휩싸였다.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정의 · 개혁 · 청산이라는 명분의 불로, 총무원은 제도 · 화합 · 안정이라는 명분의 불로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웃종교인과 시민사회까지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임을 먼저 겸허히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대화추진위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내고 지혜를 모으는 대화가 절실한 때다. 어떤 금기나 조건도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부디 함께 하시길 간곡히 청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조계종단의 지난 8년을 성역 없이 말하고 들음으로써 진실을 확인하자.

양측 입장 각각 전해 듣고

제한 없는 토론 가능토록

이르면 9월 25일 내 마련

“정치적인 해석 않길 부탁”

양쪽 각자의 명분에 안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중공의의 광장으로 나와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화추진위는 양측에 제안문을 전달하고, 이달 중순 각 입장을 경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9월 25일 안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현안을 풀어갈 방침이다. 특히 현안 검토 후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면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도법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종단현안 대화추진위원회가 9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집행부와 종단개혁 연석회의,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에 대화를 요청했다.

도법 스님은 “종단에는 대중의 뜻을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진지하게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화추진위 활동을 정치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혁과 화합이라는 두 가치 중 무엇 하나 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화추진위가 제3자로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다른 단체가 한다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종단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바깥 단체도 마찬가지”라며 “그나마 종단서 어느 정도 벗어난 백년대계본부가 맡아야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명진 스님 등 현안 당사자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힌 도법 스님은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이 불거졌을 때 찬반을 주장한 모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뤘다. 격론 끝에 정리한 결과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멍석을 깔고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화추진위에는 혜총 · 도법 · 흥선 · 덕문 · 목종 · 은산 · 범수 · 희봉(이상 비구) · 정관 · 무구 · 심원 · 지현(이상 비구니) 스님, 재가불자 김성권 · 유지원 · 유정길 · 정웅기 · 김왕근 · 김용숙 · 김점란 · 신호승 · 이향민 · 조형일 · 최영기 등 23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전법사 제도 마련된다

관련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종단 전법 ·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법사 제도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전법사는 승가대학 과정에서 4년 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해 전법 · 포교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제정안은 전법사 제도의 역할과 지원 자격, 선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교육과정에서 3.0이상의 평점을 받고, 사찰 수련회나 템플스테이 등에서 전법활동이 있는 학인에 한해 2급 전법사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서류전형과 4급승가고시, 교육위원회 심의 후 2급 전법사를 선발한다.

1급 전법사에는 2급 전법사로 위촉된 스님 중 3급 승가고시 응시자에 한해 선발 자격이 주어진다.

전법포교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1, 2급 전법사에게는 장학승 선발 및 종단연수교육에 대한 특전도 부여된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15회 대원상 공모

9월 29일까지, 포교·콘텐츠 부문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이 제15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기간은 9월 29일까지며, 공모 부문은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이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 재가부문에 대해 불교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3인(곳)을 선정한다.

또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미디어 영상포교 자원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의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분야 및 오디오 · 영상콘텐츠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집착 말라’ 는 가르침 상기합니다

⑨ 〈무소유〉를 소유하려는 세상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 나는 나름대로 근신하는 기간을 보냈다.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허허롭기 그지없었다.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자책 때문이었다. 편지라도 자주 할 걸 후회도 들었다. 스님의 숨결이 묻은 흔적들을 살펴보니 꽤 됐다. 인도나 미국에 가시어 보낸 엽서, 간디 기념관에서 사 오신 원숭이상, 강원도 오두막에 사시면서 ‘천식 때문에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가장 애틋한 물건은 스님께서 겨울내의를 보내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드린 일이다. 아마도 스님께서는 내의를 여러 벌 선물 받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셨을 것이다. 스님은 무엇이든 하나만 소유하셨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군더더기라고 했다.

“원고를 쓰기 때문인지 만년필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누가 선물해서 만년필이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되다 보니 한 개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살뜰함과 고마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선물한 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만년필 한 개를 다른 이에게 주어버렸지요.”

최소한의 것만 소유함으로써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홀가분해지자는 것이 ‘무소유’의 요지였다. 그런데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자, 스님의 〈무소유〉는 경매에 나와 놀랄 만한 액수로 거래됐다. 창원에 사는 사촌동생도 〈무소유〉를 구할 수 없겠냐고 내게 전화를 했다. 내가 법정 스님 제자이니 〈무소유〉 책을 몇 권쯤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 권도 없었다. 〈무소유〉는 〈영혼의 모음〉이란 책에서 가려 뽑아 편집한 책이었다. 나에게는 〈영혼의 모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소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무소유〉를 갖고자 하는 소유의 광풍은 이제 잦아진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씁쓸하다.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긴 〈무소유〉가 소유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왜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가지고 싶어 하는 것과 읽고 싶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한 심리상태는 무엇일까. 스님은 현대인들의 소유지향적인 마음이 〈무소유〉에서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일러스트 · 정윤경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소유’를 강요하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소유〉란 책을 낼 때는 ‘무소유’란 개념이 없었지요. 또 ‘무소유’를 정신적인 가치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책 제목을 지을 때 출판사 사장이 난색을 표했는데 내가 우겨서 정한 제목이에요.”

스님은 또 ‘베푼다’는 말보다는 ‘나눈다’라는 말을 즐겨 쓰셨다. 베푼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는 행위이고, 나눈다는 것은 잠시 맡아 지닌 것을 되돌려주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말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베풂은 상하관계이고, 나눔은 수평관계이다. 그리고 돌려준다는 것은 상하나 수평이 아닌 인연을 따르는 수연행(隨緣行)이다. 우주적 관계라고나 할까.

선 계 문

대한불교원효종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종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종단은 종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권을 어지럽히는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종정으로서 본인은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종령으로서 선계**합니다.

1. 대한불교원효종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은 종정이며, 본인은 이미 **서울고등법원 2015비합10** 종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의 결정에서 인정된 종정이고,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08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은 단지 종단의 대표자가 아닌 임시종정과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므로 임시종정과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을 대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동윤은 종단의 대표자가 아님니다.

2. 직무대행자를 종단의 대표자로 오인하여 직무대행자에게 동조하는 일부 종도들이 있으나, **종단의 대표자는 종정**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종단의 분열에 동조하지 말고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며 불도수행에 정진하기를 바람니다.

3. 원효종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이니 모든 종도는 종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 및 피선거인 등록을** 2017. 9. 30.까지 하여야 한다.

4. 위 기간내에 선거인 및 피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는 종도는 종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향후 종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관여를 배재**한다.

5. 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은 직무대행자가 하고, 교구원장 및 중앙선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보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6. 종단의 기강을 바로잡고 불순한 소수의 무리를 종단에서 영구 척결하기 위하여 종정의 직무지휘를 따르지 않는 종도는 엄히 징계할 것이니 모든 종도들은 종권을 확립하고 종단의 기강이 바로 설 때까지 자숙하고 각자의 수행에 정진하면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불기 2561년 9월 8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종회의원 선거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법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추어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 합니다

▶ **종회법 제6조에 의거하여 각 교구 선거위원회 구성**
일 시 : 2017년 10월 10일 (화) ~ 2017년 10월 20일 (금)
장 소 : 각 교구 종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종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월) ~ 2017년 10월 31일 (화)
장 소 : 각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종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의거하여 종회의원 전형**
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장 소 : 총무원 회의실(중앙선거관리위원이 심사 후 적부 판정)

▶ **종회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확정 공고**
일 시 : 2017년 11월 9일 (목)
장 소 : 총무원 게시판

불기 2561년 9월 8일

선거관리위원장 석 불

■ 총무원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전화 (054)743-0700
문의 및 판결문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원으로 연락바랍니다.